

전통과 이슬람 : 인도네시아 근대 모스크 건축 양식의 이해*

구하원**

요 약

인도네시아의 모스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동남아시아의 전통 목조건축 방식으로 피라미드형의 다단(多段) 지붕을 올린 유형이다. 둘째는 ‘이슬람 건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유형으로, 화려한 아치와 양파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돔, 여러 개의 미나레트를 가진 유형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유형은 19세기말 이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유형과 함께 두 번째 유형 중 최초로 지어진 반다 아쎬 대모스크의 역사를 살펴며 새로운 양식으로 이행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남아시아의 ‘인도-사라센’ 양식과 구분하여 이러한 양식을 ‘식민지-이슬람 양식’으로 분류하였으며, 19세기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무슬림들이 식민지-이슬람 양식의 모스크 건축을 수용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이슬람; 인도-사라센 양식; 식민지-이슬람 양식; 모스크(머스지드); 건축; 인도네시아; 근대; 20세기

* 필자의 전공과 부전공은 남아시아 근·현대 미술사와 이슬람 미술사로 동남아시아의 지명과 문화, 네덜란드어 인명 표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수정과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사

I. 서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의 모스크(mosque)¹⁾ 건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동남아시아의 전통 목조건축 방식으로 피라미드형의 다단(多段) 지붕을 올린 유형이다. 둘째는 ‘이슬람 건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유형으로, 화려한 아치와 양파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돔, 여러 개의 미나렛(minaret: 첨탑)을 가진 유형이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의 모스크는 동남아시아에서 모두 19세기 말 이후부터 지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무굴(Mughal/Moghul)’ 또는 ‘북인도(North Indian)’ 양식, ‘인도-이슬람 양식(Indo-Islamic style)’, ‘인도-사라센 양식(Indo-Saracenic Style)’의 영향으로 지어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O’Neill 1994, 225-6; Rasdi 외 2006, 50; O’Neill 1995, 153 외).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남아시아 아대륙(亞大陸) 북부를 지배하였던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은 아그라(Agra)의 타지마할(Taj Mahal, 1631-1648) 등 세계적인 영묘 건축이나 델리(Delhi)의 자마 마스지드(Jama Masjid, 1650-1656)와 같은 모스크 건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무굴 제국의 건축을 포함하여 남아시아에 지어진 이슬람 건축을 통칭하여 ‘인도-이슬람 양식’ 건축이라고 한다(Asher 1992, 2-18). 이와 구별하여 ‘인도-사라센 양식’은 영국 식민치하 남아시아에 주로 지어진 양식으로, 서구 건축 양식에 무굴 제국 또는 다른 지역의 이슬람 건축 양식을 접목한 것을 일컫는다(Tillotson 1989 등).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에 대해서는 정치 및 철학, 역사, 인류학 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미술과 건축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동남아시아 미술사에서 이슬람 미술과 건축은 그 존재만

1) 모스크는 이슬람 예배를 위한 공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를 대신하여 아랍어 ‘머스지드(masjid)’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래에 나오는 미나렛 역시 머나라(manāra: 빛의 탑)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미술 및 건축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스크와 미나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언급이 되거나(Girard-Geslan 외 1998, 368)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Kerlogue 2004, 132). 최근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예나 직물 전시도록 등의 출판이 잦아지고 있으나(Bennett 2005) 건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 중에서도 특정 시대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부분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O' Neill 1995; Bouwsema-Raap 2009)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슬람 건축 전반에 대한 연구에서 동남아시아를 논하는 경우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모스크를 우선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Michell 1995, 280) 근대의 모스크는 민족주의 의식과 범(凡)이슬람주의의 성장과 연결 지어 짧게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O' Neill 1994, 239-240).

이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모스크 건축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근대에 지어진 모스크 중 '이슬람 건축'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 건축 양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모스크 건축 양식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이행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으로 지어진 최초의 모스크인 반다 아체(Banda Aceh)의 대모스크를 비롯하여 19세기 말 이후 동남아시아에 지어진 새로운 양식의 모스크를 '식민지-이슬람 양식(Colonial Islamic style)'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인도-사라센 양식'과 구별하고자 한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 초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²⁾의 무슬림들이 식민지-이슬람 양식의 모스크 건축을 수용하게 된 과정을 밝히며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이 글에서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및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등은 현대의 지역적·정치적 개체를 지칭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를 논할 때는 '동인도 제도(Nederlands-Indië)', 즉 네덜란드령에 속하였던 인도네시아 열도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II.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모스크 건축

1. 이슬람의 도래와 초기의 건축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이 정복보다 무역과 지도층의 개종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한 바 있다(Geertz 1973, 12).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부터 이슬람이 유입되었는지 아직 이견이 있으나, 아라비아와 남아시아 서부의 구자라트(Gujarat) 지역, 그리고 동부의 벵골(Bengal) 지역의 상인들과 수피(sūfī)³⁾들이 동남아시아에 이슬람을 전파한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러서 동남아시아 해안 도시의 왕실이 개종을 이끌면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수피들의 지도력과 일반인들의 개종으로 동남아시아 이슬람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Lapidus 1988, 469).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수용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16세기 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 외세에 항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 이슬람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적이나 유물, 기록은 매우 적은 예가 남았을 뿐이다. 가장 초기의 유적으로는 수마트라(Sumatra)와 자바(Java)에서 무슬림들을 위해 14세기 말이나 15세기 초반부터 만들어진 묘비명(墓碑銘)을 들 수 있다(Hooker 1983, 3). 이 외에는 여행자들의 기록⁴⁾

3) 수피는 이슬람 신비주의를 따르는 이슬람 성인들을 일컫는다. 이는 아랍어의 쑤프(‘양모’)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거친 양털 옷을 걸친 고행자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김정위 편 2002: 410).

4) 14세기에 모로코로부터 출발하여 아라비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방문하였다고 서술한 이븐 바투타(Ibn Battuta)의 기록에서 동남아시아 이슬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정수일 2001 2권, 311).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Marco Polo) 역시 1292년에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진다(Hooker 1983, 4). 포르투갈 출신의 약종상 토메 피레스(Tomé Pires)는 『동방경전(Suma Oriental, 1515)』에서 이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묘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인도와 아덴만,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해안까지 이르렀던 명대 남해원정에 대한 기록으로 마환(馬歡)의 『영해승람(瀛涯勝覽)』 등이 전해지는데

이나 말레이어로 서술된 역사서⁵⁾ 등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슬람 문화 중에서도 모스크 건축은 무슬림들의 기도와 공동 예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었으며, 13세기부터 수마뜨라의 아체(Aceh)나 자바 중부의 꾸두스(Kudus)와 같은 도시의 중심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Wiryomartono 2009, 34). 이러한 대모스크(Masjid Agung 또는 Masjid Raja)는 왕궁과 가까운 곳에 지어져 공동체 예배의 장으로 쓰인 동시에 가레벡(garebeg) 등 동남아시아 특유의 왕실 행사가 펼쳐지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Kathirithamby-Wells 1986, 338).

2. 데막 대모스크와 이슬람의 변용

인도네시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모스크는 자바 중북부 데막(Demak)에 지어진 대모스크이다. 데막 대모스크(Masjid Agung Demak)는 이슬람을 처음 자바에 전파하였다고 믿어지는 왈리(wali: '신의 친구' 또는 이슬람 성인)들에 의해 1498년에 처음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플로리다(Florida)에 의하면 당시 여덟 명의 왈리는 이 모스크를 뿌사까(pusaka: 보물)로 만들기 위해 건물의 중요한 기둥을 하나씩 맡아서 세우기로 하였다. 그 외의 보조 기둥은 왕과 귀족들이 마련하였으며, 지붕은 일반 신도들의 보시로 지었다고 한다(1995, 324). 현존하는 모스크는 아마도 이후에 재건된 건물로 여겨지나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도 1). 즉 중앙에 정사각형의 공간을 이루도록 네 개의 목재 기둥을 세우고 피라미드형의 높은 지붕을 올린 후 주변에 낮은 기둥을 둘러 2단 또는 3단

특히 무슬림이었던 마환은 동남아 각 지역 무슬림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든 2010, 148-157; 193-195).

- 5) 근대 이전 동남아시아의 역사서 중에는 수마뜨라의 술탄 왕조 빠사이(Pasai)의 역사를 기록한 『히까야뜨 라자라자 빠사이(Hikayat Raja-Raja Pasai: 빠사이 연대기)』나 『스자라 멜라유(Sejarah Melayu: 말레이 연사, 1612년)』 등을 통해 이슬람 정착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Ricklefs 1993, 9).



도 1 데막 대모스크, 1498 이후

의 지붕을 덧댄 모습이었을 것이다. 각 지붕의 틈새로 햇빛과 바람이 통하는 채광창이 만들어졌으며 본당 앞에 따로 전당(前堂: serambi)을 세워 기도 외의 예식을 행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데막 대모스크는 두 가지 건축적 전통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열도에 지어지던 주거 건축으로 어깨 높이의 각주(脚柱)를 세워 기단을 만든 후 그 위에 대나무 등의 목재를 이용하여 지은 건축이다. 이와 같은 목조 건축은 상인방 양식으로 박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Wiryomartono 2009, 34), 특히 모스크 건축은 공용 회의장소로 지은 대규모 목조 건축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性)에 따라 공간을 좌우, 또는 본당과 전당으로 분리한 점 역시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 둘째로 이슬람 전래 이전부터 지어진 불교 사원과 힌두 사원에서 유래한 개념과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피라미드형

6) 아리안띠에 의하면 데막의 대모스크에서부터 빠웨스트렌(pawestren: 여성을 위한 기도 공간)과 같은 공간을 구획 지었다고 한다(Aryanti 2006, 75).

의 지붕에서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중시되었던 수미산(須彌山: Mount Meru 또는 Sumeru)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의 중심을 이루는 산으로 신들의 거처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적인 축의 역할을 하였다 (Kerlogue 2004, 70). 이슬람 세계관에서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요소를 모스크 건축에 이용한 것은 전통적 건축 방식에 담긴 세계관까지 받아들인 동남아시아 이슬람과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었다. 또한 전당에서 북을 울려 기도시간을 알린 것도 동남아시아 고유의 전통의 영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아단(adhan 또는 azan)을 위하여 미나렛을 지었던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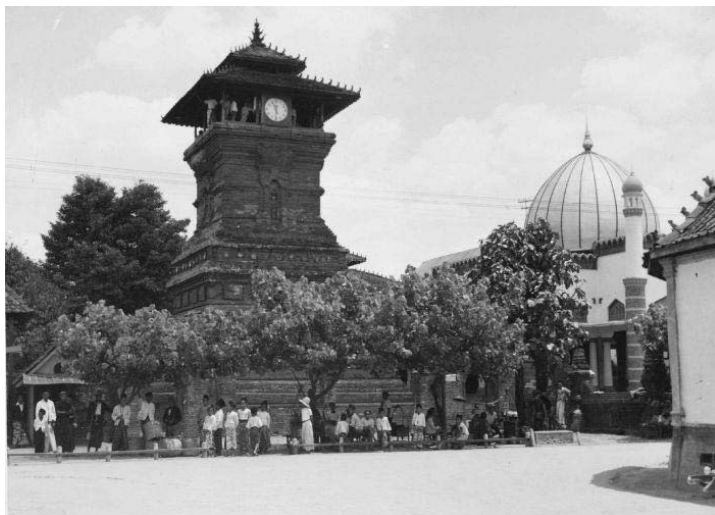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모스크 건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건축 양식 및 관습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는데, 이는 데막 대모스크의 건축 과정을 서술한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데막 대모스크 건축에 얽힌 설화는 19세기에 기록된 『자카 텅끼르의 역사(Babad Jaka Tingkir)』, 즉 자바섬에 최초의 이슬람 술탄왕조를 세운 전설의 왕 텅끼르에 대한 계시적인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Florida 1995). 플로리다에 의하면 데막 대모스크를 짓는 과정에 대해 세 가지 전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 전설은 대모스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모스크를 지을 때 이슬람의 성지 메카의 카바(Ka' ba)를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모스크가 이를 '거부'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예배 방향(qibla 또는 kiblat)이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아 모스크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한 왈리가 메카의 카바와 데막 대모스크를 함께 움직여 서로 향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인 메카를 움직인 전설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극심한 토착화 과정을 통해 변용되며 받아들여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조각으로 만들어진 기둥의 전설이다. 한 왈리가 네 개의 주(主)기둥 중 하나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구해오지 못해 결국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버린 수많은 나무 조각으로 하나의 기둥을 기적적으로 만들어 지붕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신도들에게 지붕을 봉헌하여 짓도록 하였다는 전설에 주목할 수 있다. 언뜻 보기

에는 기둥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여길 수 있는 지붕이 사실상 모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이 전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동남아시아의 건축을 연구하였던 네덜란드 건축가 마클렌 폰(Maclaine Pont)에 의하면 피라미드형 지붕을 가진 건축은 기둥보다 이를 누르는 지붕의 무게때문에 역학적으로 유지가 된다.⁷⁾ 데막 대모스크의 전설 중 일반신도들이 지붕을 봉헌하였다는 전설은 조각 기둥의 기적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확산에 신도들의 역할이 중대하였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Florida 1995, 321-337).

3. 이슬람 정체성과 모스크의 전통적 양식 확립

데막 대모스크와 비슷한 모습의 모스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다수 지어졌다. 이 중 자바 중부의 꾸두스에 지어진 머나라 꾸두스 모스크(Menara Kudus Mosque 또는 Al-Manar Mosque)는 데막 대모스크보다 약간 늦은 1549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모스크는 수차례 재건에 의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으나, 16세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독특한 점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위료마르또노에 의하면 건물의 배치나 부속 건축물에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힌두 사원 건축의 여러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모스크 앞에 남아있는 미나렛은 테라코타 벽돌로 높이 쌓은 모습인데 이전 시대에 지어진 찐디(candi: 사원)의 건축과 매우 유사하다(도 2). 예를 들어 자바 중부에 지어진 찐디 싱아사리(Candi Singasari, 1292 이후) 역시 넓은 정사각형 기단에 벽감을 층층이 쌓고 상부구조를 올린 탑의 모습이다(2009, 38). 찐디 싱아사리는 싱아사리 왕조의 끄리

7) 앙리 마클렌폰(Henri Maclaine Pont, 1884-1971)은 20세기 초 바타비아(Batavia: 현재 자카르타)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로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후에 그는 반둥 기술대학(Technische Hoogeschool te Bandung: 현재 Institut Teknologi Bandung) 건축학과 교수로 임명되면서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여러 건축물을 지었다(Jessup 1975).



도 2 머나라 꾸두스 모스크, 1549 이후

따나가라(Kritanagara)왕을 위해 지어진 제례 사원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건축은 후대 마자빠히트(Majapahit) 양식의 기반을 이루었다(Girard-Geslan 외 1998, 355). 머나라 꾸두스 모스크의 미나렛 주변에는 우요(右繞)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불교 또는 힌두교 건축의 영향이 추측되나 정확한 의례나 용도는 알려진 바가 없다. 미나렛에 복이 걸려있는데 아단을 행하기보다 이를 두드려 기도시간을 알리는 관습 역시 전통적인 종교 의례나 왕실 의례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동남아시아에 데막 대모스크나 머나라 꾸두스 모스크와 같은 전통적인 양식의 건축이 계속 지어진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닐(O'Neill)은 우선 동남아시아가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오래 전부터 유지된 건축적 전통과 풍부한 고급 목재 등을 부차적인 원인으로 꼽았다(1995, 154). 그러나 이 외에도 데막 대모스크의 전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통해 이슬람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자바/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를 시각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이 쉽게 사

라지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막 대모스크는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수하르토(Soeharto) 대통령은 데막 대모스크에 대해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축소하여 복제한 모스크의 설계도와 모형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배포하여 수많은 모스크를 짓도록 하기도 하였다(Kusno 2003, 63).

III. 서구의 판타지와 근대의 새로운 모스크양식

1. 새로운 양식의 발생

16세기 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열강이 진출하며 경제적·정치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장악함으로써 이슬람은 오히려 확산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Lapidus 1988, 474). 특히 아체(Aceh)나 마따람(Mataram) 등 상업에 기반을 둔 술탄왕조가 성장하면서 많은 모스크가 지어졌는데, 대부분 데막 대모스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목재 대신 석재를 이용하며 상인방 양식 대신 아치틀, 그리고 피라미드형 지붕 대신 돔을 가진 모스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양식과는 현격하게 다른 모습의 모스크가 지어지면서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건축양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양식의 모스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수마트라 북부와 말레이 반도의 이슬람 술탄 왕조에서 주로 지어졌다. 오닐은 영령 인도총독부(British Raj)와 부유한 인도 왕족들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카이로(Cairo)와 아라비아에서 새로운 이슬람 철학과 교육 사상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양식이 대안적인 모스크 양식으로 소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1995, 225; 239). 위료 마르또노는 무굴 제국과 영국의 건축 양식이 받아들여지면서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모스크 건축의 내부 장식의 영향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09, 40).

이와 달리 말레이시아 모스크 건축을 크게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라스디와 우타베르파는 북인도(즉 무굴 제국) 건축의 영향 외에 유럽 고전주의적(Classical) 건축의 영향을 꼽고 있다.⁸⁾ 즉 여러 연구를 보았을 때 아직 근대 이후 지어진 동남아시아 모스크 건축의 개념이나 양식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모스크들이 새로운 양식으로 지어진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스디와 우타르베르파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슬람을 기치로 내걸고 일어난 격심한 반란과 전쟁을 진압한 후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가 동인도 제도의 피지배인들에게 ‘새로운 이슬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국적인 건축, 즉 19세기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그림 같은(Picturesque)’ 양식의 건축을 선호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인도출신 무슬림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북인도의 모스크 건축 양식이 새로이 인기를 끌었다는 주장도 볼 수 있다(Rasdi & Utaberta 2006, 50-53).

19세기의 새로운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당시의 건축적인 경향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목조 주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겠지만 이러한 건물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예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네덜란드인들이 남긴 건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미 16세기부터 동남아시아에 유럽인들이 진출하면서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⁹⁾ 특히 1870년 농업법령(Agrarian Act)이 발표되면서 네덜

8) 이들은 말레이시아 모스크 건축을 전통/식민지하/현대 건축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적 지역양식(Traditional Vernacular Style)과 중국식 절충 양식(Sino-Eclectic Style), 유럽 고전주의적 양식, 북인도 양식, 현대 지역양식(Modern Vernacular Style), 모던 양식(Modernistic Style), 포스트모던 역사주의(Postmodern Historicism) 등 일곱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모스크 건축을 다루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모스크 건축과 유사한 논의가 많아 이 논문에서도 인용하였다(Rasdi & Utaberta 2006, 49-50).

9) 반텐(Banten)의 스펔베이크 요새(Fort Speelwijk, 17세기) 등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에 지어진 네덜란드 건축물에 대한 연구로는 제셀(Jessup)의 논문 참조(1985).

란드 정부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였던 이전과 달리 많은 사기업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건축을 남겼다. 이때 지어진 건물은 ‘동인도에 적합한 건축물(Indische architectuur)’을 짓기 위해 신고전주의 양식에 동남아시아의 기후와 재료를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van Roosmalen 2002/2003, 72). 그리고 대부분 사무실이나 관공서,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주를 이루었던 19세기와 달리, 1901년 윤리정책(Ethische Politiek)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학교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모스크를 개보수·증축하는 사례도 많아졌다(O'Neill 1994, 239). 또한 식민정부의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던 술탄 왕조에서도 궁전이나 모스크를 짓기 시작하면서 유럽 건축 양식과 섞인 혼종적인 양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이들이 지은 모스크 건축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적합한 건축이나 혹은 유럽 건축이라기보다, 유럽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판타지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반다 아찌의 대모스크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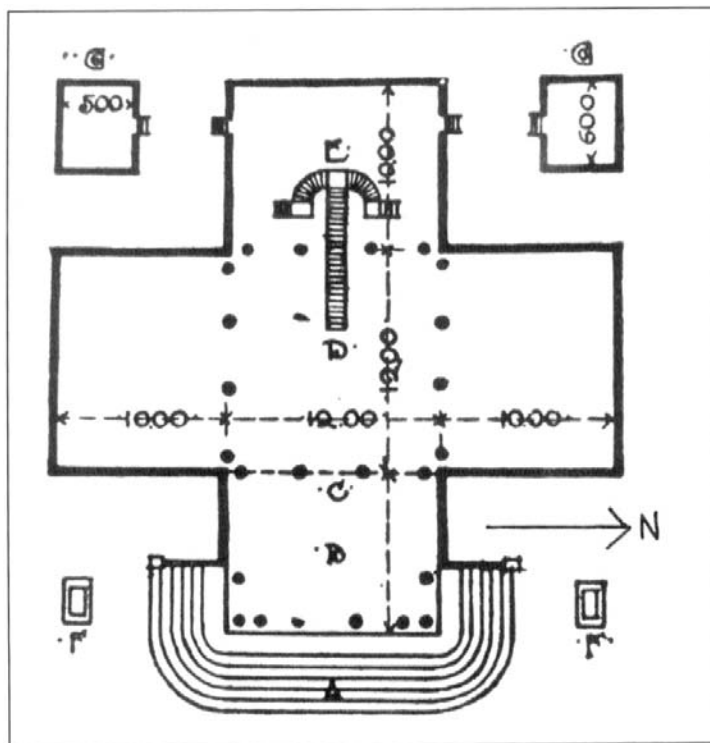
2. 반다 아찌 대모스크

머스지드 라야(Masjid Raya) 또는 머스지드 바이뚜라흐만(Masjid Baiturahman: 자비로운 재알라의 거처)으로도 불리는 아찌 대모스크는 17세기 아찌의 전성기를 구가한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Sultan Iskandar Muda, 1607-1636 재위)가 처음 지었다고 한다. 1637년에 아찌를 방문하였던 영국인 여행가 피터 먼디(Peter Mundy, 1600-1667)가 남긴 묘사와 스케치에 의하면 이때 지어졌던 모스크도 테막 대모스크와 마찬가지로 피라미드형의 지붕을 지닌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모스크였던 것으로 보인다(Bouwsema-Raap 2009, 29).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곧 비슷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으며, 내전 및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또다시 파괴된 후 1866년경에 아랍인 이슬람 학자이자 재상 하빔 압둘 라흐만(Habib Abd al-Rahman)이 중건하였다. 당시 아찌는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이들이 집결하

는 곳으로 ‘메카의 스람비(serambi: 前堂)’라 불리며 수많은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하빔의 모스크도 기록에 의하면 ‘아라비아 모스크’와 양식이 유사하였다고 한다(Bouwsema-Raap 2009, 43). 그러나 1873년 네덜란드가 아찌를 정복하기 위하여 도시를 공격하면서 당시 군사 요새로 사용되었던 대모스크는 완전히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아찌를 정복한 후에도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심을 이룬 저항 운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1879년 성명을 통해 ‘아찌인(人)들의 종교를 존중하며 협조하고자 함’을 보여주기 위해 파괴된 대모스크를 다시 지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보시마라아프에 의하면 이 모스크는 네덜란드 공공건축부서(Department of Public Works)의 건축가 브란스(Bruins)가 설계하였으며 자바 서부 출신 이슬람 학자 한 명의 자문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2009, 47). 그러나 1881년에 완공된 대모스크는 한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외면 당했다고 전해지는데(O’Neill 1994, 225), 이는 외지인들이 지은 모스크라는 자의식과 함께 낯선 건축 양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모스크는 십자형 평면의 중앙부분을 2층으로 올려 베란다를 내었으며 처마가 딸린 양과 모양의 높은 돔을 올렸다(도 3). 그리고 동쪽으로 돌출한 입구는 뾰족한 아치 위에 계단식 지붕을 올린 파사드(façade)를 가지고 있었다. 이 파사드의 한가운데에는 시계를 설치하였다(도 4). 이와 같은 건축적 모티브들은 동인도 제도의 건축, 특히 모스크 건축에서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 매우 혼종적인 뿌리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십자형의 건물은 서구 교회건축에서 비롯되었으나 신고전주의 양식에 따라 지은 유럽과 인도 궁전에서도 볼 수 있는 평면을 따른 것이었다. 특히 십자형 건물의 중심부에 낮은 반구형 돔을 올리는 것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전원주택에서 유행하였던 양식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기반을 둔 유럽의 계몽주의와 이성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는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다 아찌의 모스크 중심에 올린 돔은 반구형의 고전적인 돔이 아니라 굴곡진 양과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돔이었다. 이는 이슬람



도 3 반다 아찌 대모스크 평면도, 1881



도 4 반다 아찌 대모스크, 1881



도 5 자마 머스지드, 델리, 1650-56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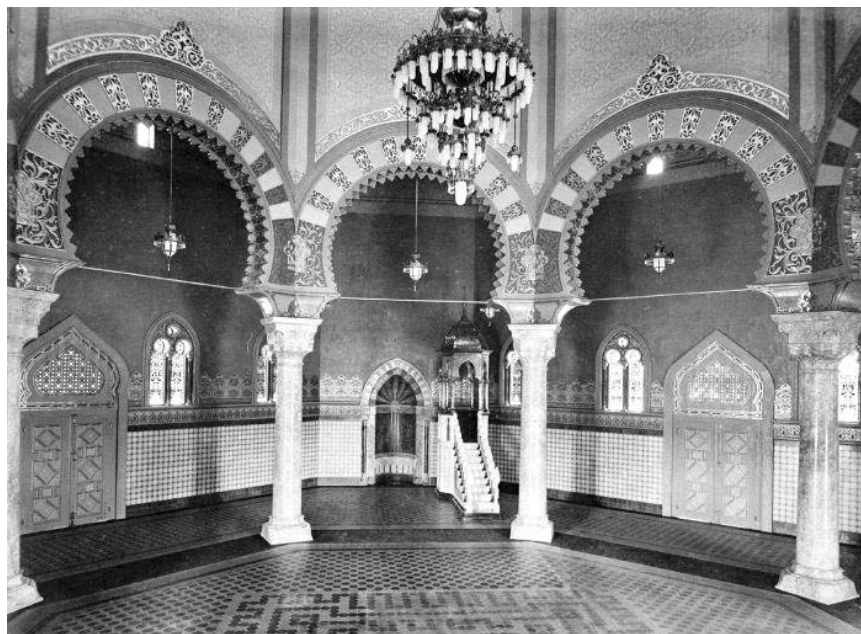
세계 동부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돔으로, 중앙아시아의 셀주크 투르크 왕조(Seljuk Turk)의 건축에서 비롯되어 이후 티무르 제국(Timurid Empire), 현재 이란 지역을 다스렸던 사파비 제국(Safavid Empire)과 남아시아 아대륙의 무굴 제국의 건축에서 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돔 양식을 가장 뛰어나게 표출한 모스크로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델리의 자마 마스지드나 라호르(Lahore)의 바드샤히 모스크(Badshahi Mosque, 1673)를 들 수 있다(도 5). 그리하여 여러 학자들이 19세기 말부터 지어진 동남아시아의 모스크 양식을 무굴 양식이나 북인도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던 것이다. 델리의 자마 마스지드와 비교하였을 때에 양과 모양으로 굴곡진 돔이나 돔 상단부의 뾰족한 장식은 반다 아쎄 대모스크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높은 기단부에 돔을 올린 자마 마스지드와 달리 반다 아쎄 대모스크는 2층에 베란다 공간을 열고 돔을 올렸으며, 돔의 아래 부분을 감싸고 넓은 처마를 조성한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많은 양의 비가 수시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기후를 고려하여 건축적인 변화를 준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가장 중심의 돔 외에도 반다 아찌 대모스크는 북인도 또는 무굴 양식의 모스크 건축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국적인 건축 요소를 보여주었다. 보시마 라아프는 정면의 계단식 파사드에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주거 건축의 파사드를 연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단이나 북을 두드려 기도시간을 알리던 미나렛을 짓지 않고 모스크 정면 파사드에 시계를 배치한 점도 당시로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내부의 스테코 장식은 스페인의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을 연상시키며 창문과 기둥의 장식은 북아프리카 카이로완(Qairowan)의 대모스크나 카이로(Cairo)의 이븐툴룬 모스크(Mosque of Ibn Tulun)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이슬람 문양 전집에서 그대로 베껴 온 것으로 추측된다(2009, 57). 심지어 지어졌을 당시 모스크는 연한 분홍색과 갈색, 연한 하늘색에 푸른색 띠로 장식을 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던 색상을 칠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모스크의 외양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도 중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했으며 동인도제도의 장인들은 목공예 조각에만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한동안 아찌인들보다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 무슬림들이나 관광객만이 찾는 모스크가 되었다고 한다.

3. 새로운 양식으로 지어진 동인도 제도의 모스크

반다 아찌의 대모스크를 필두로 하여 동인도 제도에는 수많은 모스크가 새로운 양식으로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수마뜨라 북부 델리(Deli) 지방의 경우 델리 마차페이(Deli Maatschappij)등 담배를 주로 생산하는 네덜란드 회사들이 진출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메단(Medan)에 새로운 시가를 형성하였으며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정부는 1879년 델리 준지사(Assistant Resident)를 임명하여 이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였다(Passchier 1995, 3-5). 델리 술탄 역시 1887년 메단의 새 시가지에 유럽 양식



도 6 메단 대모스크 내부, 1907

의 궁전을 지었으며 1906년에 왕궁 맞은편에 대모스크(Masjid Raya)를 지었다. 네덜란드 건축가 딘허만스(Adolf Dingemans)가 설계한 모스크는 거대한 규모뿐 아니라 화려한 내부 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 가지 색을 섞은 말발굽 모양의 아치는 특히 스페인 코르도바(Cordoba)의 대모스크 내부를 연상시키며, 이 외에도 고딕 양식의 뾰족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등 다양한 모티프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도 6).

자바와 수마트라 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이슬람 술탄들이 네덜란드나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양식의 모스크를 지었는데 말레이 반도에서도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껀다(Kedah)의 자히르 모스크(Zahir Mosque, Alor Star, 1912)나 빠락(Perak) 술탄의 후원으로 허백(Arthur B. Hubback, 1871-1948)이 지은 우부디아 모스크(Ubudiah Mosque, 1917), 인도출신 무슬림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빠낭(Penang)의 까삐탄 끌링 모스크(Kapitan Kling Mosque), 콰라룸푸르(Kuala Lumpur)의 자미 머스지드(Jami

Masjid, 1897)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지어졌으며 모두 화려한 아치와 중앙에 높은 양파모양의 돔 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스크 건축 양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인도-사라센’ 양식의 도입과 변용: ‘식민지-이슬람 양식’

1. 남아시아 대륙의 ‘인도-사라센 양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구 건축에 아치와 돔 등 이슬람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를 접합한 것을 일반적으로 건축사에서 인도-사라센 양식이라고 일컫는다. 인도 건축을 연구하던 퍼거슨(James Fergusson)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건축사에 대한 개설서에서 처음으로 ‘인도의 사라센 건축(Indian Saracenic architec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당시에는 12세기 이후 인도에 지어진 이슬람 건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1876, 186). 그러나 인도-사라센 양식은 곧 영국인들이 남아시아 아대륙의 이슬람 건축을 계승하여 지은 건축 양식을 일컫게 되었다(Tillotson 1989, 46). 대봉기(Great Uprising, 1857) 이후 영국은 스스로 무굴제국의 후계자로서 남아시아를 다스리겠다고 자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인도 총독부는 남아시아에 대한 지배방식을 건축에서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시 건축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건축은 역사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객체로 여겨졌던 것이다.¹⁰⁾ 당시 남아시아 아대륙의 건축전통에 대한 연구

10) “한 민족이나 문화, 세대의 특징은 각각을 둘러싼 껍데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건축으로 표현된다”는 믿음에 따라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건축 양식에 대한 토론이 신문 및 저널을 통해 격렬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관공서의 건축 양식에 대한 논쟁이 잦았는데 영국 의사당 재건 당시에도 양식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하여 1830년대에 이르러 건축양식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지역적 전통이 반영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인

역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뛰어난 예로 평가받은 것은 무굴 황제 등이 지은 이슬람 건축이다(Fergusson 1876, 1891).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생소하지 않으면서도 대영제국의 위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 양식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서구 양식(특히 신고전주의 양식)과 이슬람 양식(특히 무굴 제국의 건축양식)을 접합한 양식으로 결론 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혼종적인 양식의 건축을 지으면서 영국인들은 남아시아에 지어진 인도-이슬람 건축, 즉 인도-사라센 양식 건축의 전통을 자신들이 계승하여 발전시켰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건축 양식을 ‘후기 인도-사라센 양식(Late Hindoo-Saracenic Style)’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12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지은 건축을 인도-이슬람 양식의 건축, 그리고 1870년대 이후 서구와 인도-이슬람 양식을 혼합한 식민치하 건축만을 일컬어 인도-사라센 양식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최초의 인도-사라센 양식 건축물로 꼽히는 것은 남인도 마드라스(Madras: 현재의 첸나이Chennai)의 재정청 건물(Revenue Board Building, 1873)이나 북인도 아즈메르(Ajmer)에 지어진 마요 대학(Mayo College, 1875)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은 『건축가(The Builder)』나 『영국 건축사학회지(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등 건축 관련 정기간행물에 평면도와 완성도, 판화, 사진 등이 출판되면서 남아시아 전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다른 지역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¹¹⁾

인도-사라센 양식의 특징적 요소로는 무갈 제국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단연코 많았다. 끝이 뾰족하거나 꽃잎 모양으로 파인 아치와 양과 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돔,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차자(chhaja)나 돔

식되었다(Bergdoll 2000, 139; 156).

11) 마드라스 재정청 건물은 1871년 『건축가』에 목판화가 실렸으며, 아즈메르의 마요대학은 1879년 같은 저널에 석판화 및 평면도가 출판되었다(Metcalf 1989).

을 엮은 작은 정자인 차뜨리(chhatti)등은 인도-사라센 양식의 건축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였다. 그러나 북인도의 이슬람 건축에서 나타나는 양식 외에도 다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언급한 스페인의 꼬르도바 대모스크나 알함브라 궁전, 카이로의 맘루크(Mamluk) 칼리프들의 모스크나 카이로와 대모스크 등 다양한 지역의 이슬람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접합하고 있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의 건축적 요소와 장식이 상당수 반영된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유럽에 비교적 가까웠던 지역의 이슬람 건축과 미술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사라센 양식의 건축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시계였다. 이는 근대적인 발전을 상징하였으며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시대정신을 나타낸다고 믿어졌다. 결과적으로 인도-사라센 양식의 건축은 1880년대 이후 영국 식민통치에 필요한 역사(驛舍), 우체국, 학교, 박물관 등 관공서에 널리 쓰이는 양식이 되었으며(Metcalf 1989, 82) 이와 같은 건축 용도로 인해 진보와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 양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인도-사라센 양식이 ‘진보’를 상징하게 되면서 진보적인 성향의 남아시아 번왕(藩王: native prince)들이 새로 짓는 궁전의 양식으로도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이며 이성적인 유럽의 건축양식에 기반을 두면서도 인도 전통을 살린 양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도 번왕들의 영국인 대리인들과 섭정들에게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이슬람’ 양식 건축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이슬람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혼종적인 건축 양식을 모두 인도-사라센 양식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라센’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꼽을 수 있다. 어원이 분명치 않으나 사라센은 이슬람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아랍의 유목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Bloom 외 2000, 93) 19세기에는 ‘무슬림’을 널리 통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인도-사라센’ 양식은 인도의 무슬림이 지었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으므로 건축이 지어진 지역과 후원자의 종교라는 한계를 지닌 용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뿐 아니라 남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지어진 건축까지 이 양식으로 지칭하기에도 문제가 있다.¹³⁾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 지배층이 스스로 ‘이슬람 양식’을 해석하고 재현하여 모스크 등을 지었다는 의미에서 ‘식민지-이슬람 양식(Colonial Islamic style)’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 양식은 이슬람 예식, 즉 기도를 위해 지은 모스크를 포함하여 무슬림 술탄들의 궁전 등 이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축 양식이라는 점에서 영국정부의 관공서나 학교, 힌두 왕족의 궁전양식까지 모두 포함하였던 인도-사라센 양식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혼돈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영국 또는 네덜란드 등 식민지하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는 무슬림 군주를 위해 지은 혼종적인 양식을 ‘식민지-이슬람 양식’

12) ‘인도-사라센 양식’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처음 이를 사용한 영국인들에 의하면 ‘인도의 사라센’, 즉 무굴 제국의 지배자들을 비롯하여 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지은 건축양식을 일컫는 용어였으며, 이러한 건축 양식을 이어받은 자신들의 건축 양식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19세기에 지어진 건축이 남아시아(‘인도’)의 이슬람 건축 양식뿐 아니라 ‘사라센’, 즉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지역 아랍인들의 건축적 전통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붙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 어찌 되었든 영국인들이 차용한 이슬람 건축요소는 그 실용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요소였기 때문에 차용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 1915년, 캘커타에서 새로운 인도 미술을 추구하는 데 앞장섰던 하벨(Earnest B. Havell)은 ‘인도-사라센 양식’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며 퍼거슨이 완전히 창조해낸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사실상 인도의 건축에는 ‘사라센’의 요소, 즉 이집트나 아랍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915, 218). 오늘날 ‘인도-사라센 양식’이라는 용어는 남아시아 건축과 미술에 대한 개설서를 비롯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데 (테헤자 2001, 309) 티로손을 비롯한 학자들은 용어의 부적합함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989, 46).

13) 예를 들어 영국 서섹스(Sussex)의 브라이튼 별궁(Brighton Palace)과 같이 돔과 아치, 첨탑으로 장식한 유럽 건축은 ‘무어 양식(Moorish style)’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Sweetman and 1994, n.p.). 외양으로 보았을 때 무어 양식과 인도-사라센 양식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유럽에 지어진 무어 양식의 건축은 오리엔트에 대한 관심과 이국적인 취향을 지닌 ‘동양 애호가’들이 지은 건축이라는 점에서 인도-사라센 양식과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반다 아찌 대모스크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의 후원으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영국정부가 제국의 위용과 근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아시아에 지은 인도-사라센 양식 건축과 유사한 목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시마라아프에 의하면 아찌 대모스크 역시 “네덜란드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아찌인들에게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2009, 63-64). 그러나 반다 아찌 대모스크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건축’이었다는 점에서는 남아시아의 영국 건축과 현저하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시아에 지어진 인도-사라센 양식의 건축은 영국 관공서나 번왕들을 위한 궁전 건축이었으며, ‘원주민’을 위한 종교적인 건축은 극히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는 1857년의 대봉기 이후 인도인들의 종교 및 문화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영국 식민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1873년 아찌를 점령하고 술탄을 폐위시킨 상태였으나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저항운동에 직면한 상태였다. 네덜란드는 강력한 군사작전을 사용하거나 무역을 장악함으로써 북부 수마트라를 빠른 시일 내에 정복해야 했는데, 반다 아찌의 대모스크를 지어준 것은 저항세력에 대한 일종의 회유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파괴한 모스크 대신 새 모스크를 지어주기로 하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가 식민지-이슬람 양식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식민 치하 건축적 양식의 ‘선택’은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상황보다 선택 과정에 관여하는 권력의 행태가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AlSayyad 1992, 5). 이미 200여년 가까

14) 이와 달리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을 위한 종교건축은 수없이 지어졌으며 각지의 교회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런던의 세인트 마틴즈온더필즈(St Martin's-on-the-fields)교회와 매우 유사한 캘커타의 세인트 앤드류스키르크(St Andrew's Kirk)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식민지에 지어진 교회 건축은 그 지역의 건축적 양식을 접목하기보다는 영국 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Davies 1985, 43).

이 자바와 수마트라에 대한 지배를 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건축 양식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⁵⁾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전혀 이국적인 양식으로 모스크를 건축한 것은 이전의 '이슬람'과는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찌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문화나 건축, 특히 금요일 기도가 행해지는 대모스크(masjid agung)는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권력과 뿔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아찌 술탄의 경우 무역을 장악하며 주변지역을 통일하고 이슬람을 수호하는 존재로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으며, 이슬람의 상징과 의례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Lapidus 1988, 475). 동남아시아에 도달한 이슬람은 이미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거쳐 발상지의 이슬람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으며(Anderson 1990, 69),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과 왕권 사상등을 받아들여 더욱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수도(negari)의 대모스크는 중앙 광장(alun-alun) 바로 옆 권력의 중심지에 위치하였으며 데막 대모스크의 설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왈리들과 지배층, 그리고 일반백성이 힘을 합해 지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근대 이전 동남아시아에서는 네 개의 큰 기둥을 둔 모스크 외에도 지붕 중심을 받치는 하나의 높은 기둥을 세운 모스크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가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요소로, 세계의 축(axis mundi)이자 우주의 중심인 신왕(神王)의 존재를 상징하며 이슬람이 이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세기 서구 열강의 정치적·경제적인 진출은 오히려 이슬람 정체성과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1995). 그런 의미

15) 예를 들어 1811년에서 1814년 사이에 영국이 자바를 점령하였을 당시 총독이었던 래플스의 저서 등에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건축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다 (Raffles 1844). 래플스는 1814년 보로부두르(Borobudur)의 스뚜빠를 재발견하여 세계에 알린 이로도 유명한데 이후 네덜란드인들도 보로부두르를 비롯하여 많은 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계속하였다(Soekmono 1976, 4-5).

에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전통적인 모스크의 양식으로 새로운 모스크를 짓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정부의 태도를 반영하는 또 다른 예로는 1914년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전통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개최한 스마랑 식민지 박람회(Semarang Koloniale Tentoonstelling)를 들 수 있다. 근대적 문물을 전시한 부문과 함께 동인도 제도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었던 부문에서 주최측은 전통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 중 단 한 개의 모스크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을 대체할 양식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영국령 남아시아에 지어지고 있던 인도-사라센 양식의 건축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며 아제를 번갈아 정복하기도 하였으나, 양국 식민 정부의 관료와 건축가들 사이에는 매우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영국이 말레이 반도를 점령하고 지은 관공서 역시 남아시아의 인도-사라센 양식 건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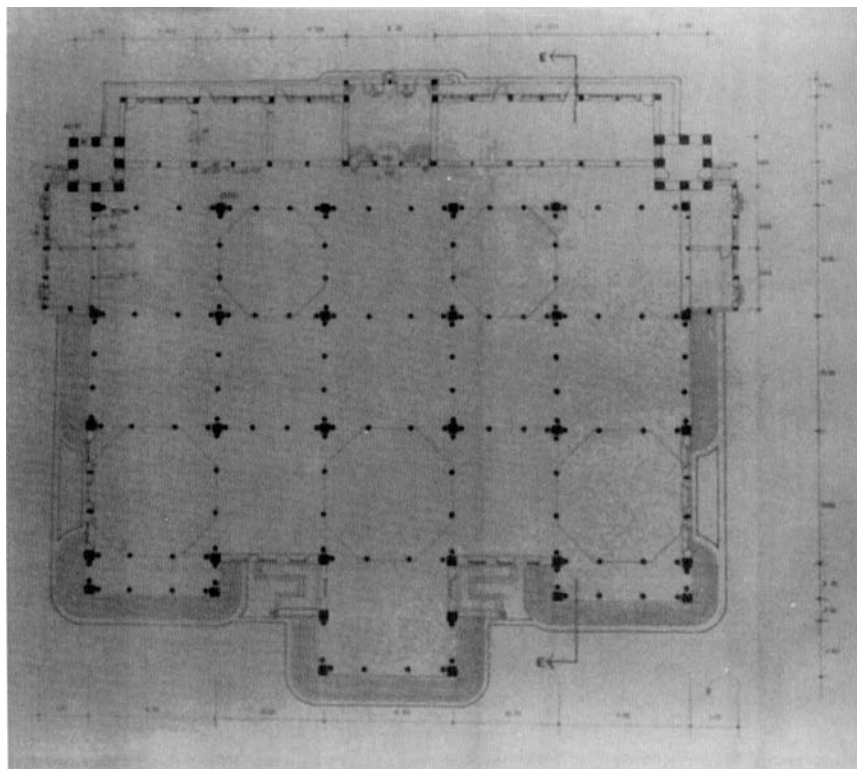
16) 또한 찬드라뿌페라에 의하면 수마트라 중부를 다스리던 델리 술탄의 궁전을 재현한 경우에도 원래의 크기보다 작게 재현하는 등 후진적인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이고자 함을 알 수 있다(2006, 72). 스마랑 박람회는 1931년 파리에서 개최된 식민지 박람회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1931년 파리에 지어진 네덜란드관은 자바와 수마트라, 발리의 전통적인 가옥과 사원 형태를 변형하여 지었다고 한다(Gouda 1995, 210). 네덜란드관의 지붕 모양에서 데막이나 쉐레본의 대모스크 양식을 찾아볼 수 있으나, 원주민들의 생활양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시물로 제작된 스마랑 박람회의 ‘델리 술탄의 궁전’ 등과 달리 파리 박람회의 네덜란드관은 식민지의 산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축물 자체의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17) 반다 아제 대모스크를 설계한 브란스의 건축적 성향과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면 양국 건축 양식의 직접적인 관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이슬람 양식 건축과 남아시아의 인도-사라센 양식 건축과의 영향 관계는 이 외에도 많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라룸푸르(Kuala Lumpur)의 술탄 압둘 사마드 건물(Sultan Abdul Samad Building)은 1894년 노먼(Charles Norman)과 비드웰(Bidwell)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이들 역시 남아시아의 ‘인도-사라센 양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Gullick 1998, 82-83).

3. 식민지-이슬람 건축양식의 수용과 변화

1881에 재건되었을 당시 반다 아찌 대모스크의 건축 양식은 전통적 권력을 대체할 종교적 기관을 세우고자 한 네덜란드 식민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지어진 메단 대모스크나 칼라룸푸르의 자마머스지드 등은 식민치하였으나 지역 술탄의 후원을 받아 지어진 건축물이었으며, 반다 아찌 대모스크 역시 술탄 및 지역 무슬림 정부의 후원을 받아 후대 여러 차례 확장을 계속하였다. 이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양식이 결국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동 예배 때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다 아찌 대모스크의 경



도 7 반다 아찌 대모스크 평면도, 1962



도 8 반다 아쨌 대모스크, 현재

우, 20세기 초부터 이를 찾는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예배 공간이 협소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936년, 1962년,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대모스크를 확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래의 십자형 평면을 직사각형으로 넓히며 여섯 개의 돔과 네 개의 미나렛을 추가하였다(도 7). 현재 반다 아쨌의 대모스크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예배 공간 외에 연못과 거대한 탑을 지닌 단지로 탈바꿈하였으며, 초기 외면당하였던 실정과 달리 아쨌의 범이슬람적인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사랑받고 있다(도 8). 보시마라아프은 이를 두고 혼종적인 양식으로 지어졌던 19세기의 모스크가 확장을 통해 ‘이슬람화(Islamicized)’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바이뚜라흐만(Bait ur-Rahman)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게 된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현대 국가의 상징인 뻠짜실라(Pancasila)를 다섯 개의 돔에서 찾을 수 있는 등 정서적, 시각적으로 아쨌인들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009, 73).

이와 함께 필자는 반다 아쨌 대모스크가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여진 원인

을 두 가지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는 아제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각 술탄 왕조에서 식민지-이슬람 양식을 그야말로 ‘인도-사라센 양식’의 원뜻, 즉 ‘남아시아의 무굴 제국 건축 양식’과 동일시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아제의 경우,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 재위 시기부터 오스만 투르크의 칼리프를 군주로 섬기며 메카의 전당(serambi Mekka)로 자처하였으나(Reid 2006, 56) 이와 함께 무굴제국의 영향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황제의 칭호와 의복, 궁전 건축 및 정원 조경 외에도 무굴 제국의 세번째 황제인 아끄바르가 ‘완전인(Insan-i Kamil)’ 사상에 기반을 두고 정립한 강력한 왕권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한다(Milner 1983, 39-40). 19세기 이후 무굴 제국이 사실상 이름뿐인 허수아비로 몰락한 후에도, 남아시아에서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은 강력한 왕권과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상징성을 유지하였다(Asher 1994). 그러므로 아제인들이 19세기말에 지어진 대모스크의 식민지-이슬람 양식적 요소들을 ‘무굴’ 제국의 건축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19세기부터 동남아시아에 일어났던 이슬람 율법주의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¹⁸⁾ 래플스에 의하면 이미 181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의 어느 술탄 왕조에서나 아랍의 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종교인들과 하지(Haji: 순례를 다녀온 이)들이 오래된 말레이 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Raffles 1830, 80).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데에는 동남아시아에 정착한 아랍인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으나(Mandal 2002), 오스만 제국으로 유학을 떠난 동

18) 19세기 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슬람 개혁운동은 ‘경전주의(Scripturalism)’, ‘율법주의(Sharia-mindedness)’,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ist Islam)’, ‘이슬람 개혁주의(Islam Reformism)’, ‘범(凡)이슬람주의(Pan-Islamism)’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중에서 널리 쓰이는 ‘범이슬람 운동(pan-Islamic movement)’은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가 매우 우려하며 주시한 운동이었으나 사실상 ‘유럽이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van Dijk 2002, 56).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 전통의 율법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주의’를 사용하며, 범이슬람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분할되면서 일어난 이슬람 부흥 운동만을 일컫는 것(Reid 2005, 227)으로 이해하였다.

남아시아 엘리트 계층과 하지를 다녀온 순례객들의 영향이 지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⁹⁾ 특히 19세기 중반이후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아라비아 및 칼리프 치하의 오스만 제국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슬람 율법주의와 함께 이슬람 본토의 사상과 문화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슬람 정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관습법이나 의례 등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이미 기술되어 있는 역사나 경전에서 샤리아(sharia)에 어긋나는 부분이 편집되는 등 보다 '순수한' 이슬람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을 볼 수 있다(Milner 1983, 48). 건축에서도,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야치와 돔, 미나렛이 있는 이슬람 본토의 모스크 건축을 접하면서 네덜란드 및 영국 식민 치하에 지어진 식민지-이슬람 양식의 건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통적인 권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으로서 네덜란드가 지은 대모스크의 특징들이 20세기 초 이후에는 아라비아와 터키 등 이슬람 세계의 중심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시각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V. 결론

‘식민지-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동남아시아의 모스크들은 매우 한정

19) 이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는 1825년에서 1852년까지 하지를 가능한 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편법을 이용한 순례객들로 인해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정부는 반-이슬람적 식민 정부라는 이미지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는 20세기 초 스노우크 후르흐론네(Christiaan Snouck Hurgronje: 1857-1936)가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정치적 행위로서의 이슬람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적인 변화를 꾀할 때까지 지속되었다(Reid 2005, 231). 18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하지를 떠난 수는 2,0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1880년에는 1만 명, 그리고 1926년에는 5만여 명이 다녀온 것으로 추정된다(Geertz 1973, 67).

적인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으며 식민치하 지배자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건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민 치하에서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각종 이슬람 건축 요소를 서구 건축이라는 뼈대에 붙인 키취스러운(kitschy)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배자들에게 이슬람 건축의 요소들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장식적인 요소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살려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은 이성과 논리에 따라 근대화를 이루고 남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지배한 자신들뿐이었다. 그러나 건축의 의미는 창조된 순간의 의미뿐 아니라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다 아쎬 대모스크의 확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외세의 영향력을 상징한다는 식민지-이슬람 양식의 건축은 이후 많은 의미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아쎬 대모스크 외에도 독립 이후까지도 동남아시아에 이러한 양식으로 많은 모스크가 지어졌는데, 가장 화려한 예로 브루나이(Brunei)의 국가모스크(national mosque)인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1958)를 들 수 있으며, 극히 현대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머스지드 이스티랄(Masjid Istiqlal; “독립 모스크”, 1978)에서도 돔과 미나렛 등 이슬람 세계의 전형적인 건축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자카르타 근처 데벡(Depok)의 인도네시아 대학 모스크(1986)나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대모스크(Sarawak State Mosque, Kuching, 1990)와 같이 최근에 지어진 예들에서도 역시 양과 모양의 황금색 돔과 미나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스크는 외양상 19세기 말 동남아시아에 지어진 모스크들과 유사하지만 식민지-이슬람 양식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국민국가주의(nationalism)나 현대 이슬람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20세기 후반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이슬람 부흥운동이나 새로운 수피즘(Howell 2002), 또는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둘러싼 권력과 이슬람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모스크도 때로 ‘인도-사라센 양식’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방식이

변모하면서 이를 반영한 건축양식으로, 분명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지어진 ‘인도-사라센’, 또는 ‘식민지-이슬람 양식’ 건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도판목록

김정위 편, 2002, 『이슬람 사진』, 서울: 학문사.

비드야 데헤자, 이숙희 역, 2001, 『인도 미술』, 서울: 한길아트.

스튜어트 고든, 구하원 역, 2010, 『아시아가 세계였을 때』, 서울: 까치.

이븐 바투타, 정수일 역, 2001,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AlSayyad, Nezar, 1992, *Forms of Dominance: On the Architecture and Urbanism of the Colonial Enterprise*, Brookfield: Ashgate.

Anderson, Benedict R. O' G., 1990,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Aryanti, Tutin, 2006, "The Center vs. The Periphery in Central-Javanese Mosque Architecture," *DIMENSI (Jurnal Teknik Arsitektur)* 34(2): 73-80.

Asher, Catherine B., 1992, *Architecture of Mughal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her, Catherine B., 1994, "The Later Mughals and Mughal Successor States: Architecture in Oudh, Murshidabad and Rampur," C.W, London ed. *Architecture in Victorian and Edwardian India*, 85-98, Bombay: Marg.

Bennett, James, 2005, *Crescent Moon: Islamic Art & Civilisation in Southeast Asia*, Adelaide: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Bloom, Jonathan and Sheila Blair, 2002, *Islam: A Thousand Years of Faith and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Bouwsema-Raap, Wilhelmina, 2009, *The Great Mosque of Banda Aceh: Its History, Architecture and Relationship to the Development of Islam in Sumatra*, Bangkok: White Lotus Press.

Chandraputera, Charles, 2006, "Collecting the Perfect Nation: Miniature Indonesia in Display," *Journal of Southeast Asian Architecture* 9: 65-85.

- Davies, Philip. 1985. *Splendours of the Raj : British Architecture in India, 1660 to 1947*. London: Murray.
- Fergusson, James. 1876. Reprint, 1910.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2 vols. London: John Murray.
- Florida, Nancy. 1995. *Writing the Past, Inscribing the Future: History as Prophecy in Colonial Jav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73. *Islam Observed: Religious Development in Morocco and Indonesi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Girard-Geslan, Maud and Marijke J. Klokke, Albert Le Bonheur, Donald M. Stadtner, Valérie Zaleski, Thierry Zéphir. 1998. *Art of Southeast Asia*.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Gouda, Frances. 1995. *Dutch Culture Overseas: Colonial Practice in the Netherlands Indies 1900-1942*.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Gullick, John Michael. 1998. "The British 'Raj' style." Voon Fee Chen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Architecture*. 82-83.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Hefner, Robert W. 1997. "Islam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R. W. Hefner & P. Horvarich eds. *Islam in an Era of Nation-Stat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ooker, M.B. 1983. "Introduction: The Translation of Islam into South-East Asia." M.B. Hooker ed. *Islam in South-east Asia*, 1-22. Leiden: E.J. Brill.
- Howell, Julia D. 2002. "Sufism and the Indonesian Islamic Revival."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0(3): 701-729.
- Jessup, Helen I. 1975. "Maclaine Pont' s Architecture in Indonesia." M.A. Thesis, Courtauld Institute of Art.
- Jessup, Helen I. 1985. "Dutch Architectural Visions of the Indonesia Tradition." *Muqarnas* 3: 138-161.
- Kathirithamby-Wells, J. 1986. "The Islamic City: Melaka to Jogjakarta, c. 1500-1800." *Modern Asian Studies* 20(2): 333-351.
- Kerlogue, Fiona. 2004. *Arts of Southeast Asia*. London: Thames & Hudson.

- Kusno, Abidin, 2003. "The Reality of 'One-Which-Is-Two' Mosque Battles and Other Stories: Notes on Architecture,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Javanese World,"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7(1): 57-67.
- Lapidus, Ira M, 1988.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dal, Sumit K, 2002. "Forging a modern Arab identity in Jav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Huub de Jonge & Nico Kaptein eds, *Transcending Borders: Arabs, politics, trade and Islam in Southeast Asia*, 163-184. Leiden: KITLV Press.
- Metcalf, Thomas R, 1989. *An Imperial Vision: Indian Architecture and Britain's Raj*.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chell, George ed, 1995. *Architecture of the Islamic World: Its History and Social Meaning*. London: Thames & Hudson.
- Milner, A, 1983. "Islam and the Muslim State." Ed. M.B. Hooker, *Islam in South-east Asia*, 23-49. Leiden: E.J. Brill.
- O' Neill, Hugh, 1995. "Islamic Architecture under the New Order." Virginia Matheson Hooker ed, *Culture and Society in New Order Indonesia*, 150-165.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O' Neill, Hugh, 1994. "[The Mosque:] South-East Asia." Martin Frishman and Hasan-Uddin Khan eds, *The Mosque: History, Architectural Development & Regional Diversity*, 224-250. New York: Thames and Hudson.
- Owen, Norman G, ed, 2005. *The Emergence of Modern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Passchier, Cor, 1995. "Medan: Urban Development by Planters and Entrepreneurs, 1870-1940." *Issues in Urban Development*. Leiden: CNWS Leiden University.
- Raffles, Thomas Stamford, 1830. *The History of Java*, 2 vols. London: Black.
- Raffles, Thomas Stamford, 1844. *Antiquarian, architectural, and landscape illustrations of the History of Java*. London: Bohn.
- Rasdi, Mohamad T. M., and Nangkula Utaberta, 2006. "Mosque architecture from Malaysia:

Classification of Styles and Possible Influences.” *Journal of Southeast Asian Architecture* 9: 43-63.

Reid, Anthony. 2005. *An Indonesian Frontier: Acehese and Other Histories of Sumatr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Reid, Anthony. 2006. *Verandah of Violence: The Background of the Aceh Problem*. Singapore: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Ricklefs, M.C. 1993.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13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oekmono. 1976. *Chandi Borobudur : A Monument of Mankind*. The Unesco Press, Paris.

Sweetman, John and A.R. Gardner. “Moorish Style.” *Oxford Art Online*.

www.oxfordartonline.com (2011년 1월 29일 접속).

Tillotson, G. H. R. 1989. *The Tradition of Indian Architecture : Continuity, Controversy, and Change since 185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Van Dijk, C. 2002. “Colonial fears, 1890-1918: Pan-Islamism and the Germano-Indian plot.” Huub de Jonge & Nico Kaptein eds. *Transcending Borders: Arabs, politics, trade and Islam in Southeast Asia*, 51-89. Leiden: KITLV Press.

Van Romondt, Ir. V.R. 2002. “Towards an Indonesian Architecture.” Translated by Wong Yunn Chii & Johannes Widodo. *Journal of Southeast Asian Architecture* 6: 97-108.

Van Roosmalen, Pauline K.M. 2002/2003. “Image, Style and Status: A Sketch of the Role and Impact of Private Enterprise as a Commissioner on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Dutch East Indies from 1870 to 1942.” *Journal of Southeast Asian Architecture* 6: 61-74.

Wirymartono, Bagoes. 2009. “Postcard from the field: A Historical View of Mosque Architecture in Indonesia.”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10(1): 33-45.

- 도 1. 데막 대모스크, 데막, 중부 자바. 1498년 이후 건축. 사진가 미상, 1870-1900.
Tropenmuseum of the Royal Tropical Institute, Amsterdam 소장.
- 도 2. 머나라 꾸두스 모스크의 미나렛(앞)과 1920년 이후 지어진 모스크(오른쪽 뒤), 꾸두스,
중부 자바. G.F.J. Bley 사진, 1920-1939. Tropenmuseum of the Royal Tropical Institute,
Amsterdam 소장.
- 도 3. ‘머스지드 라야’ ; 반다 아쎬 대모스크 평면도. 1881. Kreemer, 1920. (Bouwsema-Raap
2009, 48에서 재인용)
- 도 4. 반다 아쎬 대모스크. 1881. 사진가 미상, 1880년대. Banda Aceh Documentation Center
소장(Bouwsema-Raap 2009, 49에서 재인용).
- 도 5. 자마 마스지드, 텔리. 1660. 구하원 사진, 2009.
- 도 6. 메단 대모스크 내부, 메단. 1907. C.J. Kleingrothe 사진, 1910년경. Tropenmuseum of
the Royal Tropical Institute, Amsterdam 소장.
- 도 7. 반다 아쎬 대모스크 확장 평면도. 1968. Wim Sutrisno 그림, 연도 미상. (Bouwsema-
Raap 2009, 68에서 재인용)
- 도 8. 반다 아쎬 대모스크와 대탑 전경. 1995년 이후. Bouwsema-Raap, 연도 미상.
(Bouwsema-Raap 2009, n.p.에서 재인용)

ABSTRACT**Tradition and Islam: The Architectural Styles of the Modern Indonesian Mosque**

Ku Hawon

Mosque architecture in Indonesia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styles. The first is based on the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of Southeast Asia, in which a timber building with a hipped pyramidal roof is built on top of stilts. The second is more readily readable as “Islamic,” due to the use of arches, bulbous domes, and minarets on the building. In Southeast Asia, mosques of the second type were built only after the late-19th century, and have been categorized as “Mughal/Mogul,” “North Indian,” “Indo-Islamic,” or “Indo-Saracenic” style mosque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architectural changes found in Indonesian mosques focusing on two examples of each style: the Agung Masjid Demak (Demak Great Mosque), which was built in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Masjid Raya (or Baiturahman Mosque) at Aceh, which was built by the Dutch in the new, ‘Islamic’, style. I argue that the new style of mosques reflected the conscious rejection of the traditional mosque and power structure on which it was based. I also suggest that these mosques be categorized as ‘Colonial-Islamic style’, as they represented a European interpretation of Islamic architecture.

Due to its eclectic features, as well as the rise of Islamic scripturalism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the new colonial-Islamic style architecture came to be accepted among Indonesians as a symbol of the Pan-Islamic

community, leading to many other examples built in this style after Independence.

Key Word Islam; Indo-Saracenic Style; Colonial-Islamic Style; Mosque (masjid); architecture; Indonesia; Modern; 20th century

